

20세기 초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전개 양상 분석

-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을 중심으로

김상원*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전개 양상과 주요 쟁점
 - 1. 국어운동
 - 2. 국문운동
 - III.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의 합류 양상
 - IV. 나가는 글
-

I. 들어가는 글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는 서구 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갔다. 이는 그동안 중화질서의 존속과 강화를 가능하게 해준 핵심기제 중의 하나였던 한자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언어와 문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의에 기초하여 기존의 어문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근대 중국 어문개혁운동을 촉발시켰다.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방안들은 각기 주안점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강도와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나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자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계가 중국의 근대적 전환을 심각하게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근대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자를 매개로 한 폐쇄적인 문화소통구조와 전근대적인 가치체계의 재생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한양여자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근대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양대 주축은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이었다. 국어운동은 어음과 언어의 통일과 확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국문운동은 문체와 문자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두 운동은 당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문개혁론자들의 언어관과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 합류와 분화, 통합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의 어문체계와 사회·문화를 소수의 독점물에서 다수의 공유물로 변화시켜 나갔다.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1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 중반이었다. 역대로 가장 파격적이고도 다양한 어문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문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한 방안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당시 중국의 어문체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어문개혁운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 어문개혁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의 ‘합류→분화→통합’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그것이 갖는 한어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세기 초의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이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¹⁾

II.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전개 양상과 주요 쟁점

1. 국어운동

1) 전개 양상

20세기 초 중국의 국어운동은 한자의 표준 독음을 확정하려는 독음통일운동과

1) 본 논문은 2011년 12월 9일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제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심포지엄 주제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언어관 — ‘국어’와 ‘국문’을 중심으로』에 의거하여 그동안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개별 연구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국어의 표준 어음을 확정·보급하여 방언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국어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독음통일운동에서 한자의 독음 표준 관련 논의는 古今과 南北의 音素가 뒤섞인 ‘인공적인 공통어’를 표준으로 삼으려던 것에서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에 기초한 ‘단일 음계’를 표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어통일운동에서 다언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는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특정 어음을 표준으로 삼아 ‘국어’의 통일성을 추구하다가 1930년대에 와서는 지역 방언과 전국적 공통어의 병존 체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통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건립은 대표 방언에 입각하여 다양한 방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준 어음과 어휘를 확정하는 과정, 교육기관을 통해 해당 표준 어음과 어휘를 보급하는 과정, 그리고 문학작품을 통해 언문일치 정신에 부합하는 근대적 문체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방언의 편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즉 한자 자체가 표음기능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음부호를 제정하여 한자의 표준 독음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과정, 표준 독음에 근거하여 표준어를 보급하는 과정, 그리고 국어의 서사체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했다. 이러한 추가적 과정의 필요성은 중국 국어운동의 특성을 규정지었다.²⁾

2) 주요 쟁점

(1) 표준어의 정의, 표준음의 음계와 그에 따른 자모 설계

1912년 中華民國이 수립되자 교육부는 ‘讀音統一會’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국어운동에 착수했다. 독음통일회는 19세기 후반 어문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 정부에 의해 결성된 최초의 ‘국어’ 관련단체였다. 이 단체의 주요 임무는 한자의 국정 독음을 심의 확정하고, 표준 어음의 音素를 비준하고, 注音字母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1913년 회원들은 3개월의 연구토론 끝에 각 省 대표의 표결을 거쳐 6,500여자의 표준 독음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했던 자모를 기초

2) 拙稿, 〈晚晴 時期 ‘國語’ 企劃과 新文化運動〉, 《中國語文學論集》 제40호, 中國語文學研究會, 2006.10. 252~253쪽 참조

로 최초의 국음자모방안인 ‘注音符母’를 완성했다.

그런데 독음통일회에서 확정된 한자의 표준 독음은 실제 사용 중인 구두음이 아니라 古今南北의 전통적인 讀書音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역대의 독서음과 관화음, 남방음과 북방음이 혼합된 일종의 ‘인공적인 국음’이었다. 이처럼 최초의 국정 독음과 자모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언어’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준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보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음체계가 없었다. 그리고 한어의 어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聲調의 음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표준 독음과 통일된 어음을 기초로 국어를 보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³⁾ 이 때문에 1918년 최초의 국정 독음과 자모가 공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어의 표준 어음을 ‘인공적인 어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실제 어음’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어음 표준을 둘러싼 논쟁과 조정 과정에는 ‘국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심화 과정이 잘 나타난다. 1920년 張士一은 〈國語統一問題〉에서 주음자모와 국음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1. 먼저 교육부가 學理에 부합하는 표준어의 정의를 공포하고, 최소한 중등교육을 받은 북경 본토인의 말을 국어의 표준으로 삼는다.
2. 다음으로 과학적인 어음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표준어에서 사용하는 음을 연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한다.
3. 마지막으로 교육부 주도로 어음학자, 언어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을 소집하여 자모를 만든다.⁴⁾

이를 계기로 주음자모와 국음을 고수하지는 측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측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국어를 ‘官話’의 기초 위에서 건립해야 하는가 아니면 ‘北京語’의 기초 위에서 건립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胡適은 “우리가 지금 제창하는 국어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3)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研究》第45輯, 韓國中文學會, 2011.11. 204쪽 참조

4) 張士一, 〈國語統一問題〉, 王理嘉, 《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 18쪽에서 재인용

있다. 그것은 東北三省에서 四川, 雲南, 貴州, 長城에서 長江 유역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대동소이한 공통어이다. 이 공통어는 최근 7~800년 동안 가치있는 문학을 탄생시켜 이미 통속문학(...중략)의 이로운 도구가 되었다. 그것의 세력은 소설과 희곡의 역량, 그리고 관청과 상인의 수요에 힘입어 이미 국어 구역 이외의 수많은 지역에까지 침투했다. (...중략) 지금 이처럼 이미 널리 통용되고 또 문학을 탄생시킨 공통어를 국어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서 전국 학교 교과서의 용어가 되게 하고, 전국 신문잡지의 문자가 되게 하고, 현대와 장래의 문학용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국어를 건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다.”⁵⁾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호적이 말하는 대동소이한 공통어는 북방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관화를 가리킨다.

그리고 劉復은 “최소한 중등교육을 받은 북경 본토인의 말을 국어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 가서 진정한 북경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북경인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 측면에서 볼 때 제2언어는 외국어이든 다른 방언이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익히면 되며, 진정한 북경어는 외지인이 완벽하게 익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무수한 방언을 하나의 국어로 통합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은 무수한 방언 위에 방언을 초월하는 국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을 초월하는 국어는 구어체 문장의 구심점으로서 이미 전국적으로 일치된 수준에 도달한 백화문을 기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

이에 비해 錢玄同은 “국어는 반드시 하나의 언어를 뼈대로 삼아야 한다. 이 언어로 관화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하나의 살아있는 언어, 즉 북경어를 채용하는 것이다.북경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표준과 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관화를 비록 공통어라고 부르지만 통용되는 구역이 넓으면서도 표준이 없다. 관화는 모두 사투리가 섞인 표준어이다. 실제로 관화라고 하면 모두들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으며, 어떤 사람이 북경어를 잘 하면 다들 그가 관화를 잘 한다고 칭찬하곤 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5) 胡適, 〈國語講習所同學錄〉序, 姜義華 主編, 《胡適學術文集·語言文字研究》, 中華書局, 1993. 303쪽

6) 劉復, 〈國語問題的一大爭點〉, 《錢玄同文集》第三卷(漢字改革與國語運動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50~51쪽 참조

북경어를 국어의 뼈대로 삼는 것은 관화 혹은 공통어를 국어의 뼈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⁷⁾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을 거쳐 1924년 국어통일주비회에서는 “아름다운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삼고”, “자음은 북경의 보통 독법을 표준으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1926년 국어연구회는 《全國國語運動大會宣言》에서 “북경의 방언은 표준적인 방언으로 중화민국의 공공의 언어이자 전국을 통일시킬 표준 국어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1913년 독음통일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折衷南北, 牽合古今”의 ‘老國音’은 “순전히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는” ‘新國音’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국어의 표준음을 음소 단위로 규정하고, 새롭게 설계한 주음자모와 어음학 원리를 활용하여 실제 음가를 체현하는 발음 표준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글자들의 발음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이라는 ‘단일 음계’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음의 표준성과 통일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국어를 보급해 나갈 수 있었다.⁸⁾

(2) 표준어 보급 전략과 공통어 형성 전략, 국어와 방언의 관계와 이에 대한 입장

국어를 근대 ‘국가’의 통치 언어라고 본다면 당시 중국에서 언어를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북경 지역의 방언에 ‘표준’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방언들을 이에 맞춰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위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에 기초한 ‘국음’은 방언과 어음의 편차가 심한 당시 중국의 객관적인 언어현실을 고려할 때 절대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외국어처럼 어색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르치기도, 보급하기도, 배우기도, 습득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⁹⁾ 특히 국어를 근대 ‘국가’의 통치 언어가 아니라 근대적 ‘주체’들의 소통 언어로 본다면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아 제도적으로 이식하는 강압적이고 일원적인 ‘통일’ 정책보다는 각 지역 방언들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자연스럽고 다원적인 ‘통합’ 정

7) 錢玄同, 《吳歌甲集》序, 《錢玄同文集》第三卷, 228~229쪽

8)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204쪽 참조

9)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208쪽 참조

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0년대와 20년대 국어운동의 주안점은 제도화된 ‘국어’의 효율적 이식을 통해 동질화된 ‘국민’을 주조해 내는 데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표준어에 부합하지 않는 방언은 개조와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사회변혁 요구가 고조되면서 국가의 통치 언어로서의 ‘국어’를 지양하고 대중들의 소통 언어로서의 ‘대중어’와 ‘공통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瞿秋白은 ‘국어’라는 명칭을 의식적으로 지양하고 ‘대중어’와 ‘공통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¹⁰⁾ 그는 “중국어 언젠가는 ‘다중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¹¹⁾고 보았다. 따라서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전국적인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는 전국적 공통어를 사용해 나가면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¹²⁾ 魯迅도 “중국인은 어쨌든 장래에 반드시 여러 종류의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¹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과 전국적 공통어의 다원적 공존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북방어에 기초한 공통어가 전국적 공통어의 유력한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보급 방식은 국가가 법률과 교육제도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토속어’를 기초로 지역 단위의 공통어를 구축한 후, 전국적 공통어를 매개로 각 지역별 공통어 간의 공통분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아래서부터 위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이처럼 20세기 초 중국의 국어운동은 민족공통어로서의 국어의 성격과 실체에

10) 그는 ‘전국적 공통어’를 ‘국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것은 다른 소수 민족의 언어나 방언을 억압하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중국인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어’가 아니라 ‘전국적 공통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瞿秋白, 〈鬼門關以外的戰爭〉,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169쪽 각주 참조

11) 瞿秋白, 〈致郭質生〉(一), 《瞿秋白文集·文學編3》, 325쪽

12) 拙稿, 〈瞿秋白的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中國文學研究》第39輯, 韓國中文學會, 2009.12. 93쪽 참조

13) 魯迅, 〈答曹聚仁先生信〉, 《魯迅全集》6卷, 人民文學出版社, 1989. 76쪽

14) 拙稿, 〈魯迅의 한자 개혁론과 ‘大衆語’ 기획〉, 《中國文學研究》第33輯, 韓國中文學會, 2006.12. 237~238쪽 참조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여주었다. 즉 국가의 통합질서와 객관적 언어현실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 공통어의 기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언중들로부터 배양해 낼 것인가, 공통어의 주인을 국가로 삼을 것인가 언중으로 삼을 것인가, 공통어 기획의 주안점을 근대적 '국민'의 양성에 둘 것인가 근대적 '주체'의 탄생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¹⁵⁾

2. 국문운동

1) 전개 양상

국문운동은 구두어와 편차가 심한 서사어를 언문일치에 부합하는 문체로 개혁하려는 문체개혁운동과 한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문자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체개혁운동은 문언문과 백화문의 이원화에서 백화문으로의 통합, 다시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문자개혁운동은 한자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향과 한자를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한자의 자형을 개량하거나 표음부호를 고안해 내려는 것으로서, 簡體字와 切音字, 注音字母 방안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후자는 한자를 표음문자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1910년대에는 Esperanto, 1920년대에는 국어로마자, 1930년대에는 라틴화 신문자가 대체 문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근대 국문운동은 일반적으로 서사어에 대한 귀족 사대부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어의 확립과 구성원들의 문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대적 식자 교육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20세기 초 중국의 국문운동 역시 역대로 귀족 사대부들이 독점해온 문언 중심의 서사규범을 개혁하고 일반 대중들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구어체 중심의 문체를 구축하기 위해 '言文一致' 정신에 입각한 백화문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문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식자 교육 방안들을 모색해 나갔다.

그런데 중국의 국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인 한자는 표음기능이 부실하고 독음이 불

15) 拙稿, 〈한자의 개혁과 표음문자 체계의 모색〉, 《中語中文學》第41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7.12. 353쪽 참조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자수가 수 만자에 달했다. 따라서 표음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언문일치에 입각한 문체개혁을 수행하고 구성원들의 문맹을 해소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 중국의 국문운동에서는 단순한 문체개혁과 식자 교육을 뛰어넘어 기존의 문자 체계인 한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개혁 시도들은 20세기 초 중국 국문운동의 기본적인 특징을 규정지었다.

2) 주요 쟁점

(1) 문체개혁운동

20세기 초 중국 문체개혁운동의 주요 쟁점은 서사어의 문체를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文言과 대중들이 사용하는 白話로 이원화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백화로 일원화 할 것인가? 문체개혁의 토대를 서사어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구두어로 삼을 것인가? 지식인의 언어를 토대로 할 것인가 대중들의 언어를 토대로 할 것인가? 등이었다.

근대 중국에서 문체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당시 문체개혁운동의 주체는 維新派 士人들이었다. 1898년 裘廷梁은 〈論白話爲維新之本〉이라는 글에서 문언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백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자가 있으면 문명국이고, 문자가 없으면 야만국이며, 문자를 알면 지혜로운 백성이고, 문자를 모르면 어리석은 백성인 것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된 점이다. 유독 우리 중국만 문자가 있지만 문명국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만 지혜로운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구정량이 말하건대, 이것은 문언의 해로움 때문이다. [.....중략] 중국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으로 문언만한 것이 없으며, 중국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으로 백화만한 것이 없다.¹⁶⁾

그런데 당시 유신과 사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계몽에서 백화가 갖는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기는 했지만 문언이 백화보다 우월하다는 문장관에는 본질적인 변

16) 裘廷梁, 〈論白話爲維新之本〉,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第四冊, 上海古籍出版社, 1988. 168~172쪽

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劉師培는 백화가 일반 대중들의 계몽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문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문장은 둘로 구분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속어를 가다듬어 대중들을 계몽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고문으로 국학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¹⁷⁾

그들은 문언은 '사대부'들의 '고급' 글말이고 '백화'는 '백성'들의 저급 글말이라는 이원적인 언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글쓰기 영역과 역할에 따른 문체의 구분이 초래하는 관념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언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문일치에 입각한 근대적 서사어는 탄생시킬 수 없었다.¹⁸⁾

1910년대 후반에 일어난 5·4 신문화운동은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와 문화에 대규모 변혁을 초래함으로써 근대적 사고와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언어관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4 시기에 현대문화의 성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그것이 추구한 것은 일종의 사회와 민족의 동질성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요구한 것은 어떠한 특수한 계급의 언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회 모든 민족의 언어였다.¹⁹⁾

5·4 신문화운동이 가져온 문화 변동과 언어관의 변화는 백화문운동에도 커다란 진전을 가지고 왔다. 5·4 신문화운동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지식인 집단들은 晚清 士人들의 이원적인 언어관과 세계관을 극복하고 모든 글쓰기 영역에서 문언을 백화로 대체하는 전면적인 문체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문언은 고급 문체이고 백화는 저급 문체라는 전통적인 문체관을 타파하고 백화의 품격과 지위를 새로운 근대 문명과 문화를 대표하는 전 국민의 국어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끌어냈다.²⁰⁾

17) 劉師培, 〈論文雜記〉, 夏曉虹, 〈五四白話文學的歷史淵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85.3.), 作家出版社, 27쪽에서 재인용

18) 〈文體的統一과 '國語'의 建立〉, 56쪽 참조

19) 曠新年, 〈胡適與白話文運動〉,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99.2.) 14쪽

20) 拙稿, 〈文體的統一과 '國語'의 建立〉, 《中國文學研究》 第30輯, 韓國中文學會, 2005.6. 56~57쪽 참조

그것은 백화가 원래 지니고 있던 문화품격을 바꾸려고 했으며, 그들이 구상한 것은 일종의 새로운 백화였다. 즉 ‘士’ 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民’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기존의 문화층차의 한계를 타파하고 건립한 일종의 통일된 전 국민의, 士와 민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백화였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언어였다. 그들은 새로운 명사를 제시함으로써 ‘백화’라는 명칭을 대체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국어’였다. ‘국어’의 건설에서 [……] ‘대중화’는 그 중의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결코 목적은 아니었다. [……] 그(호적:인용자)가 말한 백화는 문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언어였다. [……] 백화는 새로운 언어의 이상적인 응결체가 되었다.²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5·4 백화문운동은 실제 사용하는 구두어와 거리가 먼 문언 위주의 서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언문일치에 입각한 백화 위주의 새로운 서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백화문학의 성공적인 탄생과 국어교육제도의 개혁에 힘입어 백화를 국어의 공식적인 문체로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국어 확립에 필요한 든든한 기초를 확립해 주었다.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정치·사회적 혁명 요구가 고조되면서 종래의 ‘어떤 언어로 쓸 것인가?’라는 문제는 ‘누구의 언어로 쓸 것인가?’라는 계급적이고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사회변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어문체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형태의 작품으로 다가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의 참여와 이해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문예대중화 논의가 시작되었다.²²⁾

1934년 蔣介石이 중국 전통의 봉건도덕을 기치로 내건 ‘新生活運動’을 추진하면서 문언부활 움직임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汪懋祖가 〈禁習文言與強令讀經〉이라는 글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문언을, 중학교에서는 《四書》를 가르쳐야 한다는

21) 杜素娟, 〈關於白話文運動的幾點追問與思索〉,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97.4.), 1997. 34~35쪽

22) 당시 구추백의 문예대중화론은 “신문화운동의 본질이 민중의 세계와 어우러져 광범위한 민족공동체로서의 ‘우리’를 구현해내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글쓰기에서의 주체성을 지식인 주체에서 민중 주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발상”이었다. 정진배,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74쪽과 80쪽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吳研因이 〈駁小學參教文言中學讀孟子〉라는 글을 통해 汪懋祖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문언과 백화의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당시 문언의 부활에 반대하는 진보문학 진영에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문언과 백화의 논쟁에 예전과는 다른 보다 진전된 주장과 조직적인 방식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진보문학 진영에서는 1934년 6월 18일부터 《申報·自由談》을 거점으로 일련의 문장을 발표함으로써 ‘대중어운동’²³⁾을 제기하게 되었다. 당시 陳子展은 〈文言-白話-大衆語〉라는 글을 통해 대중어 제창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나는 백화보다 더 진일보하여, 대중어문학을 제창할 것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략) 지금의 백화문학은 지식인 계층의 것일 뿐 아직은 일반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중략) 종전에는 문언의 허다한 결점들을 보수하기 위해 백화를 제창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백화문학의 허다한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대중어를 제창하지 않을 수 없다.²⁴⁾

즉 대중과 백화문학의 문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대중어를 제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과 백화문학 사이의 간극은 단지 문체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백화문학이 담고 있는 내용과 사상이 대중들의 요구나 의식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양자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대중어가 새로운 문체로서 대중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대중들이 답지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의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聞心은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라는 글에서 대중어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3) ‘대중어운동’이라는 이름은 문언 부활 움직임과 문언을 섞어 쓴 백화에 반대하고 대중화된 언어와 언문일치를 조직적으로 제창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 운동은 주로 1934년 6월에 시작되어 1935년까지 진행되었는데, 논쟁에 참여한 문장이 약 5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樂嗣炳談“大衆語”運動和魯迅先生〉, 《魯迅研究資料9》, 天津人民出版社, 1982. 209쪽 참조

24) 陳子展, 〈文言-白話-大衆語〉,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208~209쪽

대중어운동은 한편으로는 진부한 어문형식과 그것에 기탁된 사회의식을 타파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새로운 어문도구를 이용하여 진보적 문화의식을 대중 속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주요 임무를 안고 있다. 한 가지는 대중의 교육을 위해 투쟁하여, 대중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어문을 대중이 지식을 흡수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편리한 도구로 개조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중국문화를 개조하고 군중들에게 만연한 노예의식, 제국주의 문화의 영향 및 각종 기생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철저한 해결에 따라 중국 학술문화의 발전 문제도 따라서 해결될 것이다.²⁵⁾

이처럼 대중어운동은 문화 생산과 소통 과정에 대중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자유로운 글쓰기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존의 문화구조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것은 대중어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이자 역대의 어문개혁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2) 문자개혁운동

한자의 표준 독음과 국어의 표준 어음을 확정·보급하려는 국어운동은 자연스럽게 표음부호의 개발로 이어졌다. 한자는 표준 독음과 어음을 명확하게 표기해줄 수 있는 표음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자의 표음체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들은 표음부호의 개발에서 출발하여 한자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표음문자방안의 개발로 이어졌다. 20세기 초 중국의 문자개혁운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기존의 문자체계인 한자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표음문자로 대체할 것인가? 표음문자로 대체한다면 어떤 형태의 자모를 사용할 것인가? 등이었다.

근대 중국의 문자개혁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말 切音字運動에서 부터였다. 절음자운동이란 전통적으로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던 反切法 대신에 문자와 어음이 일치하는 새로운 표음문자 방안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일련의 시도들을 가리킨다. 절음자운동을 처음 촉발시킨 사람은 盧戇章이었다. 그는 1892년 《一目瞭然初階》에서 새로운 표음문자 방안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25) 關心,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8쪽

나라의 부강은 과학에 있고, 과학의 번성은 남녀노소 모두 배우기 좋아하고 이치를 깨닫는 것에 있다. 배우기 좋아하고 이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절음을 문자로 삼는 데 있다. (…… 중략) 문자와 언어가 일치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소리내기만 해도 생각이 통하게 되며, 또 자획이 간단해지면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 (한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인용자) 10년여의 시간을 절약하여, 이것을 수학·물리·화학 및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학문 연구에 집중한다면 어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겠는가!²⁶⁾

그의 절음자 방안은 라틴자모를 기본 자형으로 삼아 만든 중국인 최초의 표음문자 방안이었다. 이는 한자에 각 지역의 방언이나 관화의 음을 표음함으로써 복잡한 한자를 보다 쉽게 가르치려는 절음자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00년 王照가 창안한 ‘官話合聲字母’ 방안은 한자를 기본 자형으로 삼아 만든 최초의 표음문자 방안으로서 가장 널리 보급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절음자 방안이었다. 왕조의 방안은 각 지방의 방언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북경의 관화를 표준어음으로 삼아 중국의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²⁷⁾

하지만 이들이 절음자 방안을 제기한 주요한 목적은 한자와 절음자를 병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자와 官話字母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²⁸⁾고 한 왕조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처럼 당시의 절음자 방안은 사대부가 일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하사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을 대체할 희망은 전혀 없었다.²⁹⁾

일련의 절음자 방안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 본격화 된 국어운동으로 계승됨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인 國音字母인 ‘注音字母’의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했다.³⁰⁾

26) 盧翹章, 《一目瞭然初階·原序》,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文字改革出版社, 1979. 26쪽에서 재인용

27) 拙稿,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中國語文學論集》第46號, 中國語文學研究會, 2007.10. 391~392쪽 참조

28) 王照, 《官話合聲字母》,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文字改革出版社, 1979. 30~31쪽 참조

29) 胡適,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5年版, 11쪽 참조

30)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393쪽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 교육부가 국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한 ‘讀音統一會’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한자의 국정독음을 표기할 표음자모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여러 가지의 자모 방안들이 ‘國音字母’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중 1913년 독음통일회에서 한자의 표준 독음을 심사할 때 잠정적으로 사용했던 38개의 ‘記音字母’를 개선한 ‘注音字母’가 ‘國音字母’로 선정되었다.

1918년 ‘國音字母’로 공포된 주음자모 방안은 첫째, 한자의 자형과 어음에 부합하면서도 한자에 비해 필획이 훨씬 간명해서 익히고 쓰기에 편리했다. 둘째, 한 語素의 어음을 聲母·介母·韻母의 결합 구조로 표기함으로써 전통적인 반절법보다 표음의 명확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다. 셋째, 각기 독립적이고 명확한 음가를 지닌 표음부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표음문자 체계였다.³¹⁾ 이처럼 주음자모 방안은 한어의 어음체계를 분석·정리하고, 한자가 결여하고 있는 ‘소리’ 체계를 보완하고, 한자의 독음 표준을 바로잡아 국어의 기틀을 확립한 최초의 공식적인 방안이었다.³²⁾

주음자모 방안은 당시로서는 중국 고유의 문자인 한자 자형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표음문자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³³⁾ 하지만 주음자모 방안은 어음체계나 표음부호, 독음 표준 등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한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표음문자 체계로 대체하려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한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과도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았다.³⁴⁾

한편 1915년 反 전통·反유가를 기치로 내건 5·4 신문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중국 전통문화의 응결체이자 전통적 가치체계의 재생산 도구였던 한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폐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³⁵⁾ 이에 그동안 문체개혁과 표음자모 창안에 주안점을 두었던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한자가 아니라 표음자모에 ‘문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31)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395쪽

32)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193쪽

33)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395~396쪽

34)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193쪽 참조

35) 拙稿, 〈錢玄同의 한자폐지론과 ‘국어로마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35輯, 韓國中文學會, 2007.12. 168~169쪽 참조

먼저 5·4 신문화운동을 전후하여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천하’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체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에 일부 신문화운동 진영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Esperanto 채용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종래의 한자개량론이나 표음자모 창안론을 뛰어넘어 한자와 한문, 그리고 한어 전반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문체계인 Esperanto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Esperanto 채용론은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으로서 종래의 한자개혁론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어문개혁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중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중국민족이 20세기 문명의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유가와 도교를 타파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하며, 유가의 학설과 도교의 황당한 말들을 기록한 한문을 폐지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문을 폐지한 후에는 어떤 문자로 대체해야 하는가? 이는 당연히 혼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내 의견을 말하자면 문법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발음이 정돈되고 가지런하며, 어근이 정교하고 훌륭한 인위적인 문자인 Esperanto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⁶⁾

이러한 Esperanto 채용론은 중국의 어문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서양의 어문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점들이 기존의 어문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중국 국내의 소통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어문체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어문개혁론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이는 향후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더 이상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언어문자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³⁷⁾

1920년대에 제기된 ‘국어로마자’ 방안은 Esperanto 채용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36) 錢玄同, 〈中國今後之文字問題〉, 《新青年》第4卷 第4號(影印本), 上海書店, 1988. 354쪽

37) 拙稿, 〈신문화운동시기 언어문자 개혁론과 ‘Esperanto’〉, 《中國文學研究》第37輯, 韓國中文學會, 2008.12. 225쪽

것이였다. 1923년 전현동 등 한자폐지론자들은 국어로마자 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1926년 9월 〈國語羅馬字拼音法式〉 초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1928년 9월 교육부는 이를 1918년에 공포된 ‘注音字母’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國音字母 第二式’으로 정식 공포했다. 이로써 국어로마자 방안은 로마자모 방안으로서 최초로 정부의 추인을 거쳐 국어자모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근대적 언어관에 부합하는 국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자개혁과 표음문자의 창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였다. 즉 종래와 같은 한자의 자형 변화나 표음성 강화가 아니라 문자구성 방식과 표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한자와 표음부호를 하나의 문자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이였다. 따라서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문자체계는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³⁸⁾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층 더 높은 단계에서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인가?’ 그것은 한자를 표음자모로 고쳐 쓰는 것으로 현재의 주음자모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인가?’ 세계적인 자모인 로마자모식 자모를 표음자모로 채택해야만 하는 것이다.³⁹⁾

국어로마자 방안은 종래의 방안들보다 훨씬 보편적인 문자관을 구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엄격한 표음규칙과 규범들에 기초한 완전한 문자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즉 한어의 어음을 音素表音制에 입각하여 표기함으로써 국음의 표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래의 한어표음방안들이 한자의 字音を 기계적으로 표기하는 데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휘별 이어쓰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규칙 확립에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독립적인 표음문자체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⁴⁰⁾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은 주음자모 방안보다 여러모로 진전

38) 〈錢玄同의 한자폐지론과 ‘국어로마자’ 방안〉, 175쪽 참조

39) 錢玄同, 〈漢字革命〉, 《錢玄同文集》第三卷, 76쪽

된 것이지만 표음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도 미약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말았다.

1930년대에 등장한 瞿秋白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역대의 표음문자 방안들에 비해 한층 진전된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어체계를 부정하거나 개별 한자의 독음을 표음자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어휘와 언어, 문법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문자표기와 문장규범의 확립을 시도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또한 표음문자 방안이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사어가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두어를 기초로 삼아야 하며, 진정한 현대적 서사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표음문자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다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었다.⁴¹⁾

구추백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창안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대중들이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여 보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자에 기초한 지배계급의 문화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대중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혁명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새로운 중국의 문자혁명은 한자와 문언을 완전히 폐지하고 로마자모와 표음제도를 채용하여 일종의 새로운 형식의 중국문 — 수억의 대중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수준 높고 깊이 있는 학술문화 생활에 참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다.⁴²⁾

이처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이나 '官話'와 한자에 익숙한 소수 지식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언과 성조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객관적인 어문 현실과 문맹 대중들의 실제 요구에 기초한 것이었다. 때문에 국어로마자 방안과 달리 공통어와 방언의 공존을 장려하고, 일률적인 성조 표기를 거부하고, 띄어쓰기 규칙을 확립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 나갔다. 그리고 기존의 여타

40)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41) A.Γ.施普林欽 〈瞿秋白與拼音文字〉《瞿秋白研究7》, 瞿秋白紀念館編, 學林出版社, 1995. 162~163쪽 참조

42) 瞿秋白, 〈新中國的文字革命〉, 《瞿秋白文集·文學編3》, 280쪽

방안들과는 달리 한자의 독음이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두어를 표음문자로 표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대중들이 실제로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언어와 문자를 확립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중국이 당면한 사회변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했다.⁴³⁾

Ⅲ.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의 합류 양상

19세기 말 중국 근대 어문개혁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국어와 국문에 대한 개혁론자들의 인식은 각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활동 영역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족공통어를 구축하려는 국어운동과 근대적 문체와 새로운 문자체계를 구축하려는 국문운동은 각기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개별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한자의 표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표음자모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대에 실제로 사용하는 어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는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 현상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방치하고, 구두어보다는 서사어를 중시해온 전통적인 어문관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통적인 ‘문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언어와 문자, 구두어와 서사어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⁴⁴⁾ 한편 국어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된 ‘어음’이 아니라 ‘규범화’된 ‘이상적’인 ‘말’이다. 이 때문에 국어운동은 필연적으로 ‘言文一致’에 입각한 새로운 문체운동과 그것에 기초한 문학운동과 연동할 수밖에 없다. 근대적 문체와 문학을 통한 국어의 보급과 제고 없이는 ‘규범화’된 ‘이상적’인 ‘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⁵⁾

43) 拙稿,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41輯, 韓國中文學會, 2010.12. 1~2쪽 참조

44) 〈胡適與白話文運動〉, 7~8쪽 참조.

어문개혁운동 추진자들이 두 운동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중화민국이 수립되어 국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국어와 국문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5·4 신문화운동을 계기로 서구 언어와의 접촉과정에서 기존의 ‘문자’ 중심주의적 언어관이 약화되고 ‘語音’ 중심주의적 언어관이 강화되면서 부터였다.

胡適은 한자의 독음통일과 표음자모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국어운동과 대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문체개혁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백화문운동을 문학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통합시킨 ‘백화문학’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1918년 4월 〈建設的文學革命論〉에서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라는 구호로 구체화시켰다.

나의 ‘신문학건설론’의 유일한 핵심 취지는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라는 단 열 글자이다. 우리가 제창한 문학혁명은 단지 중국에 일종의 국어의 문학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국어의 문학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문학의 국어가 있을 수 있으며, 문학의 국어가 있어야 우리의 국어는 비로소 진정한 국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 없는 국어는 생명도 가치도 없으며, 성립할 수도 발달할 수도 없다.⁴⁶⁾

중화민국 수립 이후 국어운동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국어의 표준과 추진 절차를 확정·공포해야지만 국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4 백화문운동의 선도자였던 호적은 표준 국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비교적 널리 통용되고 많은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백화를 채용하여 ‘국어의 문학’을 건설하고, 그것을 ‘문학의 국어’로 다듬어나가는 방법으로 표준 국어를 확립하고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어의 표준은 교육부나 소수의 국어연구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근대 각국의 국어 역사를 보면 먼저 표준을 선정한 후에 발생한 국어는 하나도 없다. 모든 나라가 먼저 국어가 생긴 후에야 소위 표준이라는 것이 생겼다. 국어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먼저 비교적 널리 통용되고, 가장 많은 살아있는 문학을 만들어낸 방언이 있어야 한다.

45) 〈晚晴 時期 ‘國語’ 企劃과 新文化運動〉, 262쪽

46)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胡適文存·1集》, 黃山書社, 1996, 42쪽.

국어로 채용될 수 있는 주요한 방언은 점차 추진되면서 수시로 각지 방언의 장점을 수용하는 동시에 점차 각지의 방언을 변환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국어의 성립이다.⁴⁷⁾

이처럼 호적은 문학이 국어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어가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것인지, 어떻게 규범을 확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었다.

그는 ‘국어의 문학’과 ‘문학의 국어’의 변증법적 통일⁴⁸⁾을 통해 백화의 지위를 구어체 문장에서 문학 언어로, 나아가 국어의 기초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백화로 쓴 문학작품을 매개로 국어를 보급하고 확립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국어운동과 국문운동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어는 ‘言文一致’ 이상의 미학적 품격, 즉 보다 진실하고 세밀한 서정과 서사, 그리고 묘사가 가능한 글말로서의 미학적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⁴⁹⁾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5·4 이후의 백화문도 여전히 일반 대중들의 실제 구두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에는 고대 백화와 불필요한 문언의 요소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어의 구두 습관과는 거리가 먼 서구와 일본의 문법체계와 어휘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예전의 문언과 마찬가지로 거의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문체였다.⁵⁰⁾

1930년대 들어서자 瞿秋白은 이러한 5·4식 백화문을 “이것과 저것이 뒤섞인 잡종 문체”로 써진 신문언어이며,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소일품에 지나지 않는다”⁵¹⁾ “거짓 백화”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5·4 문학혁명이 미완의 혁명에 그쳤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혁명이 필요하며, 그것은 “5·4의 단순한

47) 胡適, 〈國語講習所同學錄〉序, 302~303쪽

48) 朱德發, 〈評“五四”時期胡適的文學主張〉, 《文學評論叢刊》第十一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262쪽 참조

49) 〈文體의 改革과 新文化運動〉, 166~167쪽 참조

50)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84쪽 참조

51) 瞿秋白, 〈致伯新兄〉, 《瞿秋白文集·文學編3》, 345쪽

연속이 아니라 ‘변증법적 발전’이어야 한다.”⁵²⁾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백화문은 현대 중국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로 써야 하며, 특히 ‘신홍 계급의 공통어에 근거해서 써낸 글’이어야 한다면서 대중들이 ‘읽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간편하고 명료한 ‘현대적 중국문’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5·4 이래의 신문학은 확실히 새로운 언어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언어는 결코 ‘국어’—현대적인 공통어가 아니었다. 이러한 신문학의 언어는 신식 백화라고 부를 수 있다. 신문학의 임무는 본래 마땅히 현대적인 중국문—현대 중국의 공통어를 나타내는 문자까지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형성해 놓은 것은 현대적 중국문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뒤섞인’ 언어에 불과하다. (……중략) 신문학이 사용하는 신식 백화는 하층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자를 아는 수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다른 나라의 문자와 언어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학의 시장은 거의 완전히 신식 지식계급—서구화된 지식계급에 한정되어 있다.⁵⁴⁾

나아가 그는 “한자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사람의 문장’인 현대 중국문(즉 완전히 백화만 사용하는 중국문장)을 철저히 건립할 수 없다.”⁵⁵⁾면서 한자를 표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혁명’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중국에서 이러한 ‘문예혁명’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소위 ‘문투혁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대인이 말하는 어조로 고대의 귀신이 말하는 어조를 대체하고,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백화로만 문장을 쓰는 ‘문투혁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철저히 ‘사람 어조’의 백화로 ‘귀신 어조’의 문언을 대체하고, 한자를 폐지하고 표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혁명’을 실행해야만 한다.⁵⁶⁾

구추백은 한어의 서면어와 구두어가 전반적인 불일치 현상을 보이게 된 주요한 원인은 한어가 표음문자가 아닌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사용해온 데 있다고 보았다.

52) 瞿秋白, 〈致迪兄〉(一), 《瞿秋白文集·文學編3》, 331쪽

53) 宋陽(瞿秋白), 〈大衆文藝的問題〉, 《瞿秋白文集·文學編3》, 16~17쪽 참조

54) 〈鬼門關以外的戰爭〉, 147쪽

55) 瞿秋白, 〈學閥萬歲〉, 《瞿秋白文集·文學編3》, 178쪽

56) 〈學閥萬歲〉, 179쪽

따라서 서면어를 구두어와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아온 한자를 표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두어에 기초한 진정한 백화문을 확립하는 대폭적인 문체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이처럼 구추백은 5·4 백화문운동의 한계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하려는 문체개혁운동과 한자를 로마자모로 대체하려는 문자개혁운동을 대중들의 '구두어'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합하려는 '현대적 공통어의 신중국문' 구상을 제기했다. 그가 제안한 '현대적 공통어의 신중국문'은 언문이 일치하는 진정한 현대적 백화문과 그것에 기초한 전국적 공통어의 구축과 보급, 그리고 당대의 구두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로마자모의 새로운 문자제도와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지배질서와 문화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었다.⁵⁸⁾ 다시 말해 그것은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에 기초한 새로운 문체와 문자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한어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대중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문체개혁, 표음자모 창안, 문자개혁, 문화운동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되어 온 20세기 초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⁵⁹⁾

57) “瞿秋白의 ‘언문일치’론은 구두어와 서면어의 본원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구두어에 기초한 현대적인 중국 ‘보통화-문학언어’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瞿秋白은 이와 같이 구두어에 기초함으로써 중국의 문(文)의 질서에서 강고한 중심으로 작용해 온 漢字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어의 라틴화(拼音化)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研究-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75쪽

58)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105쪽

59) 拙稿, 〈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 《中國文學研究》第40輯, 韓國中文學會, 2010.6. 241~242쪽 참조

IV. 나가는 글

20세기 초 중국의 어문체계는 언어와 문자, 구두어와 서사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어’와 ‘국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문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했다. 이에 독음통일운동, 어음통일운동, 공통어운동, 백화문운동, 한자개혁운동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 운동들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래의 어문체계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초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형상과 의미를 중시해온 전통적인 ‘문자’ 중심주의적 언어관을 실제 구두어와 어음을 중시하는 ‘어음’ 중심주의적 언어관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자의 독음과 국어의 표준어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체개혁과 문자개혁을 통해 언문일치에 가까운 서사어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여전히 말할 수 있는 이도 적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도 적은 말에 머물렀으며, 국문 역시 여전히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글에 머물렀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 어문체계의 핵심인 한자를 질적으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 중국의 어문체계가 안고 있던 문제들은 대부분 한자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역대로 한자는 언어와 문자, 구두어와 서사어의 조화로운 발전, 특히 언어의 시각적 표기인 문자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심각하게 구속해왔다. 이는 ‘국어’와 ‘국문’이 요구하는 통일성과 소통성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한자의 속성을 어느 정도까지 개혁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자가 단순한 문자부호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담지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더욱이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서구열강과 대적할 수 있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민족문화의 상징체인 한자를 질적으로 개혁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었으며, 국어운동과 국문운동 역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언어와 문자 본연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즉 역대로 소수가 배타적으로 독점해온 어문제도를 타파하고 다수의 언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근대적인 어문제도를 건설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개혁하고 근대적 민족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국어운동과 국문운동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각종 방안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어문제도 수립에 소중한 경험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 초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현대 한어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裘廷梁, 〈論白話爲維新之本〉,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第四冊, 上海古籍出版社, 1988.
- 盧贛章, 《一目瞭然初階·原序》,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文字改革出版社, 1979.
- 王照, 《官話合聲字母》,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文字改革出版社, 1979.
- 劉復, 〈國語問題的一大爭點〉, 《錢玄同文集·第三卷》(漢字改革與國語運動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胡適文存·1集》, 黃山書社, 1996.
- 胡適, 〈國語講習所同學錄序〉, 姜義華 主編, 《胡適學術文集·語言文字研究》, 中華書局, 1993.
- 胡適,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5.
- 錢玄同, 〈《吳歌甲集》序〉, 《錢玄同文集·第三卷》(漢字改革與國語運動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錢玄同, 〈中國今後之文字問題〉, 《新青年》第4卷 第4號(影印本), 上海書店, 1988.
- 錢玄同, 〈漢字革命〉, 《錢玄同文集》第三卷, (漢字改革與國語運動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瞿秋白, 〈鬼門關以外的戰爭〉,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新中國的文字革命〉,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致郭質生〉(一),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致伯新兄〉,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致迪兄〉(一),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學閥萬歲〉,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宋陽(瞿秋白), 〈大眾文藝的問題〉,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魯迅, 〈答曹聚仁先生信〉, 《魯迅全集》6卷, 人民文學出版社, 1989.
- _____, 〈樂嗣炳談“大眾語”運動和魯迅先生〉, 《魯迅研究資料9》, 天津人民出版社, 1982.
- 陳子展, 〈文言-白話-大眾語〉, 《文藝大眾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 聞心, 〈大眾語運動的幾個問題〉, 《文藝大眾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 정진배,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研究-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王理嘉, 《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 語文出版社, 2003.
- 夏曉虹, 〈五四白話文學的歷史淵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85.3.), 作家出版社, 1985.
- 杜素娟, 〈關於白話文運動的幾點追問與思索〉,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97.4.), 1997.
- 曠新年, 〈胡適與白話文運動〉,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99.2.), 作家出版社, 1999.
- A.Г.施普林欽 〈瞿秋白與拼音文字〉《瞿秋白研究7》, 瞿秋白紀念館編, 學林出版社, 1995.
- 拙稿, 〈文體的統一과 ‘國語’의 建立〉, 《中國文學研究》第30輯, 韓國中文學會, 2005.6.
- 拙稿, 〈錢玄同의 한자폐지론과 ‘국어로마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35輯, 韓國中文學會, 2007.12.
- 拙稿, 〈신문화운동시기 언어문자 개혁론과 ‘Esperanto’〉, 《中國文學研究》第37輯, 韓國中文學會, 2008.12.
- 拙稿, 〈瞿秋白의 ‘현대적 공동어의 新中國文’ 연구〉, 《中國文學研究》第39輯, 韓國中文學會, 2009.12.
- 拙稿, 〈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 《中國文學研究》第40輯, 韓國中文學會, 2010.6.
-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研究》第45輯, 韓國中文學會, 2011.11.

【中文提要】

“國語運動”和“國文運動”是二十世紀初中國語文改革運動的兩大支流。“國語運動”的主要目標是標準語音的確定和語言的統一，而“國文運動”的主要目標是文體和文字的改革。這兩種運動，隨着當面的社會文化環境的變化與語文改革論者的語言觀和世界觀的變化顯示出合流、分化和統合的現象，而且通過這一系列過程把少數集團所掌握的中國語文體系和社會文化改成為多數人會享有的公共財富。二十世紀初中國語文改革運動過程中出現過的各種語文改革方案，給中華人民共和國的語文政策提供了很寶貴的經驗和理論基礎。從這種角度來看，二十世紀初中國語文改革運動在現代漢語史上具有很重要的意義。

【主題語】

國語運動, 國文運動, 標準語, 文體改革, 文字改革

language movement, alphabet movement, standard language, style revolution, character revolution

투고일: 2012. 4. 15 / 심사일: 2012. 4. 22~5. 5 / 게재확정일: 2012. 5. 10